

가레스 퓨(Gareth Pugh) 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서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가레스 퓨(Gareth Pugh)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을 고찰하였다. 실험적이고 창조적 역동성을 표방하는 가레스 퓨가 작품에 표현하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통해 현대패션에 전개되고 있는 그로테스크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향후 창작디자인 전개와 연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문헌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통해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 가레스 퓨의 작품세계를 문헌 고찰하였고,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그가 독자적인 브랜드로 컬렉션을 개최한 2006 F/W 컬렉션부터 최근 2012 S/S 컬렉션까지의 작품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결과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은 과장된 비정상성, 이질적 부조화,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 부정적 유희로 나타났다. 첫째, 과장된 비정상성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부풀린 패션, 과장된 어깨의 강조, 과거 복식 형태의 역설적 과장 등 지나친 왜곡과 과장을 통해 나타났다. 둘째, 이질적 부조화는 하이테크 기계의 이미지를 도입시킨 사이보그의 형태나 동물적 이미지와 결합된 반인반수의 형상, 비밀상적 소재를 통해 나타났다. 셋째,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는 신체의 가학적 훼손이나 파괴가 아닌 블랙으로 전개되는 색채감과 창백한 메이크업,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일그러진 얼굴 형상, 그리고 의상에 표현되는 부가적인 혐오스러운 요소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유희의 감정은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이나 인체의 왜곡, 무경계적인 성의 모호함, 비의미적인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연출 등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그로테스크의 표현들은 현대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과 불안을 반영하며 인간 본질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과 소외된 인간 내면의 회복을 유도하게 하는 미적표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충격적인 자극효과와 경계초월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로테스크는 앞으로의 패션에 있어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혁신적인 창조성을 추구하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가레스 퓨, 그로테스크, 비정상성, 부조화, 언 캐니, 부정적 유희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인간성 상실과 심리적 불안감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당면한 현실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비정상적이며,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동시에 공포와 웃음이 섞인 그로테스크(grotesque)의 특성을 통해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현상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지닌 미적가치의 기준이 기존의 미의 질서를 벗어나 보다 확대되고 폭 넓은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름다움의 가치는 충격과 혐오스러운 추의 미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문학, 회화, 조각, 사진, 패션 등 예술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로 확대되어 표현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뒤렌마트(Friedrich Durrenmatt)가 그로테스크를 현대예술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그것은 구체적인 표현이자 역할이며 무형상의 형상¹⁾이라고 하였듯이, 공포와 웃음, 비현실적인 기이함, 부조화 속의 조화와 충격 등 양면의 미적가치를 유발하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은 현대패션에 있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새로운 창조적 영감의 바탕이 되고 있다. 현대패션의 많은 디자이너들 역시 이러한 그로테스크의 감성을 통해 자극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연출하며 독특한 작품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런던의 떠오르는 신인디자이너를 넘어 파리의 앙팡테리블로, 또 제 2의 존 갈리아노(Jonh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으로까지²⁾ 급부상되고 있는 가레스 퓨(Gareth Pugh)의 작품에 있어 이러한 그로테스크적인 표현은 구조적이면서 기하학적인 조형미와 함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 그로테스크와 관련된 선행연구(남미현, 박명희, 2004³⁾; 박

은경, 2003⁴⁾; 서승미, 2003⁵⁾; 이선화, 2011⁶⁾; 장미숙, 양숙희, 2007⁷⁾; 최정화, 유영선, 1998⁸⁾)는 세기 말적인 현상의 하나로 20세기말과 21세기 초반의 현대패션이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나 일반적인 추의 미학으로 언급된 연구들로 가레스 퓨의 컬렉션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현대패션에서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실험적이고 창조적 역동성을 표방하는 가레스 퓨가 작품에 표현하는 그로테스크의 표현특성을 통해 현대패션에 전개되고 있는 그로테스크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셋째, 향후 그로테스크 디자인 전개와 연출에 표현 특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통해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 가레스 퓨의 작품세계를 고찰하였고,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그가 독자적인 브랜드로 컬렉션을 개최한 2006 F/W 컬렉션부터 최근 2012 S/S 컬렉션까지의 작품 286점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을 고찰하였다. 사진자료의 경우 인터넷 패션쇼 사이트인 스타일 닷컴(www.style.com)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화면상에 부정확한 부분이나 디테일적인 측면은 패션 컬렉션지인 Gap, Mode & Mode, Fashion News 등의 사진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로테스크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역사

그로테스크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괴상하고 기

이함, 또는 흉측하거나 우스꽝스러움을 의미하며, 둘째, 예술적 측면에서 인간이나 사물 따위를 괴기스럽게 묘사한 예술미를, 셋째, 건축과 장식 예술에서, 동물, 사람, 식물 모양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환상적인 장식을 의미한다. 원래 그로테스크는 고대 로마의 한 지하 동굴인 그로타(grotta)에서 발견된 큰 메달, 스펅크스, 나뭇잎, 바위, 자갈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장식을 일컫는 의미이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의 신체 일부들이 유희하듯 서로 문쳐 있는 기괴한 벽화를 의미하였으나, 후에 회화나 건축 등 예술작품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 형태간의 무질서한 혼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¹⁰⁾ 사용되었다.

중세와 르네상스시기에 있어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카니발, 성사극 속의 악마적 연극, 어릿광대극 등과 같은 민중축제 구경거리 형식들 속에서 본질적인 발전을 거두었고,¹¹⁾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란 양면성을 지닌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전개되어¹²⁾ 예술개념으로 발전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1957년 독일의 비평가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는 그로테스크를 정상적인 직관 범주의 해체나 대조적인 것의 직접적인 조립으로¹³⁾ 정의하였으며, 인간 소외와 공포, 비극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적인 언캐니(uncanny) 그로테스크를 주장하였다. 이는 물질적 신체, 이중적, 왜곡, 변형, 비천함을 주장하는 미하엘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카니발 그로테스크 이론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전개되었다.¹⁴⁾ 또 그로테스크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클레멘스 헤셀하우스(Clemens Heselhaus)는 상호 이질적인 것들의 돌연한 결합으로, 프리드리히 뒤렌마트(Friedrich Durrenmat)는 역설적인 것으로, 아놀드 하이디크(Arnold Heidsieck)는 데포르마시옹이나 현실 일그러뜨리기라 하였다.¹⁵⁾ 크리스티안 톰젠(Christian

Thomsen)은 그로테스크란 식물과 동물, 인간, 기계적인 것 들 즉 이질적인 부분들이 새롭고 독자적인 단일체로 혼합되거나 융합되어 이미 인정된 규범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거나 전도시키고, 의식적으로 기대영역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¹⁶⁾ 이라고 규정한다.

2) 그로테스크의 특성

그로테스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근거로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은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에 대해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구축한 필립 톰슨의 분류를 바탕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성과 그 의미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조화성이다. 그로테스크의 독특한 특징으로 거론 되는 부조화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어울리지 않는 융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조화가 예술작품 자체에서만 아니라 작품이 유발하는 반응 속에서도, 그리고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나타남을 의미한다.¹⁷⁾ 이러한 부조화의 특성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선과 악 등 이질적인 것들을 공존시켜 양면적인 이상성의 감정을 발생시키며 인간 존재의 가치상실과 존엄성에 대한 재고라는 내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둘째,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움이다. 그로테스크에는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항시 존재하게 되며 여기에 내재된 웃음은 갈등과 대립을 수반한 희극적인 것으로 경멸과 조롱, 그리고 악마적인 웃음의 특성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재미와 웃음은 끔찍함이라는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 즉 작품 속에서 희극적인 것과 끔찍함이라는 공포의 감정이 균형 있게 융화되지 못하고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난 아이러니한 캐킴이나 악마적 공포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¹⁸⁾ 이라할 수 있다. 이는 혼란스

러운 현실세계에 대한 역설적 반응으로서 인간 내면의 본능적이고 자위적인 심리를 반영함은 물론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과 조롱, 인간 내면에 대한 각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나친 과장과 극단이다. 그로테스크가 정상 상태를 벗어난 과장과 극단이라는 특성을 통해 표현됨에 따라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것과 결부시키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왜곡과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은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인정함은 물론 이를 더욱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즉 익숙한 기존의 질서와 세계관을 혼동시키며 극단과 과장으로 표현하는 그로테스크의 충격효과는 현실의 고정관념과 규범적 질서를 혼란시키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고자 하는 갈망을 반영하며 가학적인 쾌감까지도 부여하게 된다. 넷째, 비정상성이다.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은 비정상성과 부자연스러움의 특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는 저속하고 거칠음, 사실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난, 또는 쓸데없는 왜곡이나 억지스럽고 무의미한 과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²⁰⁾ 그러나 비정상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균형의 파괴는 구체적인 역설이며, 무형상의 형상, 표정 없는 세계의 표정으로²¹⁾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의 상실된 상황을 균형이 파괴된 이중적 모순으로 제시함으로써 충격적인 시각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권위나 질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 패션분야에서 그로테스크의 연구동향

유수미, 이재정(2001)²²⁾은 현대사회에 있어 굿 디자인적인 요소와 반 디자인적인 요소가 공존함에 따라 그로테스크의 시도들이 더 이상 충격적이

지 않은 일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있어서도 관객의 주목과 관심을 야기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하여 엽기적인 표현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패션과 관련한 그로테스크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최정화, 유영선(1998)²³⁾은 1990년대 그로테스크 패션의 표현방법으로 소원한 것끼리의 결합, 기계 및 동물이미지의 도입, 왜곡 및 과장, 혐오스러운 이미지의 도입이라 하였고, 남미현, 박명희(2004)²⁴⁾는 1990년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악마성, 혐오성, 유희성, 이질성으로 구분하였다. 박은경(2003)²⁵⁾은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신체에 매개로 한 이분법의 경계가 무너진 경계의 모호성과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이미지로 분류하였으며, 이선화(2011)²⁶⁾는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을 비정상성, 부조화성, 유희성, 공포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로테스크의 미학은 고대의 메두사 형상, 16세기 매너리즘 작가들의 예술작품, 19세기 말 상징주의자들에 의해 그 맥을 이어왔으며,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르네 마거리트(René Magritte)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현실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의 표현으로 그로테스크한 초현실적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이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세기말적인 현상의 하나로 신체적 담론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었으며 순수예술의 장르를 넘어 영화, 광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장되고 혐오스러움, 기괴하면서도 유희적 감정을 전달하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은 보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시각적 충격효과와 함께 사회 전반에 내재된 부조리와 인간의 소외 현상을 드러내며 양면적인 모순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패션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독특한 미의 가치를 나타

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가레스 퓨의 작품 활동

1) 컬렉션과 무대의상

엄격한 클래식과 자유로운 스트리트 패션, 그리고 아방가르드가 공존하는 영국 패션에 있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중의 하나인 가레스 퓨는 14세부터 English National Youth Theatre에서 코스튬디자이너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Sunderland College를 시작으로 2008년 Central Saint Martins에서 패션디자이너를 전공했으며, 릭 오웬스(Rick Owens)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의 졸업 작품은 <그림 1>과 같이 모델의 팔, 다리와 관절 부분에 풍선을 넣어 부풀린 일명 ‘부풀림 패션 (inflated fashion)’으로 독창적인 인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이 작품은 패션잡지 『Dazed & Confused』의 편집장 눈에 띄어 잡지의 커버로 등장하게 되어 주목받기도 하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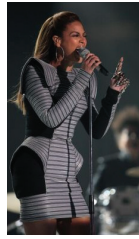
이후 2005년 영국 리얼리티 쇼인 『The Fashion House』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 런던에서 가장 촉망받는 디자이너로 발탁되어 런던 클럽 ‘Kashpoint’s Alternative Fashion Week’에서 데뷔무대를 갖기도 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Fashion East’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활동했으며, 2006 F/W 컬렉션부터 독자적인 브랜드를 전개하였고 2009 S/S 컬렉션부터는 런던을 떠나 파리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진행하여 드라마틱한 무대와 함께 과장되고 조각적인 형태와 연출 등 자신만의 특별한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다. 스타일닷컴에서는 그를 1980년대 클럽문화의 주역인 레이 보워리(Leigh Bowery)와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같은 퍼포먼스 아트 디자이너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⁸⁾ 『W Korea』 역시 런 웨이에 등장한

신진디자이너들 중 하나로 가레스 퓨를 주목하면서 그의 상징물인 V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세브론 형상과 함께 과장되고 구조적인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패턴, 에나멜 스트라이프, 블랙, 사이보그적인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세기와 출처를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런던의 신동에서 파리의 앙팡테리블로 진화하고 있다²⁹⁾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2006 F/W 컬렉션에 개최된 그의 첫 컬렉션은 피기영화의 사운드 트랙과 함께 축구공과 같이 부풀려진 패딩점퍼, PVC 레깅스, 골드와 블랙의 체스 판 패치워크 의상, 희극적인 광대의 메이크업 등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선보였다. 2007 S/S 컬렉션에는 기하학적이고 그래픽적인 프린트와 공상과학 영화의 이미지를 주제로 얼굴전체를 가린 라텍스(latex) 마스크, 인체의 왜곡과 과장된 형태로 사이보그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2007 F/W 컬렉션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브리티시 룩, 드랙 퀸(drag queen)의 요소와 함께 에나멜 스트라이프 패턴의 케이프, 과장된 어깨의 코트, 블랙마스크와 언밸런스 헤어 등을 통해 피기스러운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 2008 S/S 컬렉션은 블랙의상과 온 몸을 뒤 덮는 프린지 장식, 그래픽적인 실루엣, 살아있는 생쥐와 같이 혐오스러운 오브제를 사용하였고, 2008 F/W 컬렉션에는 블랙과 그레이를 중심으로 중세의 갑옷과 일본 사무라이 무사의 복장이 혼합된 것과 같은 여전사의 이미지, 창백하고 피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악의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2009 S/S 컬렉션은 런던을 떠나 파리에서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며 블랙에서 탈피한 화이트를 중심으로 과장된 어깨와 각진 팔, 다리 등 과거 중세 갑옷과 같은 이미지, 과장된 러프칼라의 조합으로 과거와 미래가 혼합된 사이파이(sci-fi)적인 감성을 연출하였고, 2009 F/W 컬렉션은 블랙과 실버의 맥시 케이프, 가죽소재의 피트 되는 원피스, 사이하이 부츠, 공포 이미지의 메이크업 등 암울한 중세의 이미지를 그로테스크한



<그림 1>
가레스 퓨, 2006년
(출처: <http://en.wikipedia.org>)



<그림 2>
비욘세 드레스, 2008년
(출처: <http://www.ukopia.com>)



<그림 3>
앱솔루트 모드, 2011년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4>
패션 필름, 2008년
(출처: <http://nickknight.com>)

환상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2010 S/S 컬렉션에는 어두운 그레이 색상과 블랙, 새의 깃털을 이용한 반인반수의 이미지, 온몸을 뒤덮는 레이스 업, 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한 남녀무사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2010 F/W 컬렉션에는 블랙 네오플랜(neoplan)과 가죽, 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꾸로 된 V자 형상의 커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형태로 여전사와 같은 강인한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2011 S/S 컬렉션은 블랙과 화이트, 실버 색상의 모던한 이미지,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바디슈트, 옵티컬 패턴을 이용한 환상적인 이미지, 사무라이 헤어스타일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패션영상을 개최하였으며, 2011 F/W 컬렉션은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함께 블랙과 골드, 블루의 조화, 중세의 어둠과 종교적 판타지 등을 그로테스크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2012 S/S 컬렉션 역시 그의 주된 컬러인 블랙과 화이트를 이용한 작품들로 사이파이적인 감성의 건축적인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나타냈고, 또 기이한 형상의 마스크들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공포와 혐오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고스(goth)와 그로테스크, 블랙의 이미지가 조화된 독특한 감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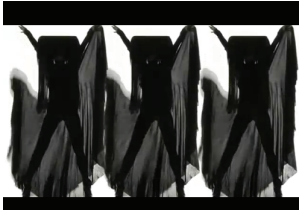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가레스 퓨는 형태와 볼륨에 있어 실험정신을 나타내며 인간의 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조각과도 같은 이미지와 강한 개성을 연출한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볼륨 있는 코트를 위한 PVC, 정사각형의 블랙과 화이트의 패

치워크, 사슬 갑옷과 같은 방풍유리(perspex disc), 빛나는 라텍스 마스크와 레깅스 등 밍크, 실크 낙하산, 거품 축구공, 아프로(afro) 헤어, 전기로 충전시키는 플라스틱 등 기발하고 독특한 소재 등을 사용하여 그만의 독특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가레스 퓨의 작품은 입을 수 있는 옷뿐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의상을 전개한다는 그만의 패션 철학에 기인한 것으로, 그는 작품의 영감을 여행이나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자신이 자란 곳의 환경과 **ute**그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³⁰⁾

그의 실험적인 의상은 컬렉션뿐만 아니라 <그림 2>의 MTV 유럽 어워드 무대에 선 비욘세(Beyonce)의 의상,³¹⁾ 카일리 미노그(Kylie Minogue), 로이진 머피(Roisin Murphy), 레이디 가가(Lady Gaga) 등 유명 연예인들의 앨범 재킷과 무대 의상으로 입혀지는 등 그의 실험적인 의상은 많은 스타들에게도 자신의 개성을 부각시키게 하는 하나의 코드로 선택받고 있다.

2) 콜라보레이션

가레스 퓨의 실험정신과 기괴함은 상업성을 무시한 퍼포먼스적인 무대의상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으나, 그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특유의 독창적인 감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Absolut사는 그의 2007 S/S 컬렉션에서 모티브를 따온 블랙 컬러의 구조물을 이용해 <그림 3>과 같이 Absolut Mode 컬렉



<그림 5> 패션 필름, 2009년
(출처: <http://www.youtube.com>)



<그림 6> 패션 필름, 2010년
(출처: <http://www.youtube.com>)



<그림 7> 패션 필름, 2011년
(출처: <http://www.youtube.com>)

션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75명만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기도 하였다.³²⁾ 또 인 케이스와의 협업으로 아이 폰 케이스를, 브라질 슈즈브랜드 Melissa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 화장품 브랜드 MAC은 가레스 퓨의 기하학적 패턴의 삼각형 조합으로 구성된 화장품 케이스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업적인 협업 외에도 사진작가 닉 나이트(Nick Knight), 루스 호그벤(Ruth Hogben) 등과 아트작업을 통해 전위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이미지의 패션 영상 작품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림 4>와 같이 2008년에는 닉 나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Insensate’를 주제로 환상적인 패션 영상을 소개하였으며, 2009 F/W 컬렉션에는 Show Studio의 멤버인 Ruth Hogben과의 작업을 통해 ‘The Visionaries’의 영상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블랙과 화이트만을 사용한 화면구성과 단 한명의 모델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역동적인 패션 영상으로 <그림 5>와 같이 극적인 이미지와 강인한 여성상, 그로테스크한 매력을 표현하였고, 옷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쇼 형태로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매튜 스톤(Matthew Stone)의 음산한 사운드 트랙과 함께 극대화 시킨 볼륨의 의상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며 그로테스크한 영상미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전위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제공하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지를 연

출³³⁾하게 되는데, 2010 F/W 컬렉션에는 사진작가 루스 호그벤과 협업하여 ‘Joie de Vivre’를 주제로 중세 여전사의 이미지를 <그림 6>과 같이 관능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여성상의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표현하였다. 2011 S/S 컬렉션 역시 ‘Pitti’를 주제로 루스 호그벤과 작업한 영상물을 패션쇼 대신 상영하기도 하였다. <그림 7>과 같이 데칼코마니 형식의 화면 구성과 모델의 역동적인 움직임, 자극적이면서도 흑백화면에 의한 미래적이고 모던한 이미지 등 작품의 콘셉트와 이미지를 일반적인 컬렉션보다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패션 평론가 수지 멘키스(Suzy Menkes)는 ‘더 이상 패션쇼를 위해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쇼를 위한 모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필요하지 않다.’³⁴⁾ 라고 평하는 등 언론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가레스 퓨는 인터넷과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매 시즌 패션 영상작업을 통해 강렬하면서도 차별화된 이미지로 그가 제시하는 입을 수 있는 옷만이 아닌 보여주고자 하는 옷의 이미지, 그리고 더 나아가 패션과 예술이 융합된 패션아트 영상을 전개하고 있다.

III. 가레스 퓨 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

양면적이면서 다층적인 미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 1>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과 가레스 퓨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표현 특성의 연관성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	그로테스크 표현특성의 연관성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특성
부조화성 -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어울리지 않는 융합		과장된 비정상성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 경멸과 조롱, 악마적인 웃음, 공포의 감정 유발		이질적 부조화
지나침과 과장 - 정상 상태를 벗어난 과장과 극단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
비정상성 - 균형의 파괴와 부자연스러움		부정적 유희

그로테스크의 특성은 독창적인 패션의 이미지와 실험성을 추구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일탈된 패션이라는 충격적 표현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미현(2002)³⁵⁾은 현대패션에 그로테스크와 같은 이미지가 형성된 요인으로 죽음의 본능, 종교적인 요인, 세기말적인 현상, 추의 미학, 하위 문화 집단의 저항, 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간과 기계의 경계모호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즉 보다 강한 개성과 자극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이러한 요인 및 양상들은 현대인의 감성 및 그로테스크의 다양한 양면성과 부합되어 무한한 창조적 실험정신을 유발하게 하는 하나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장에서 고찰한 필립 톰슨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을 과장된 비정상성, 이질적 부조화,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 부정적 유희로 범주화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연관성은 <표 1>과 같다.

1. 과장된 비정상성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 기존 의복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과장시켜 인체의 일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나타내거나 기괴한 형상으로 표현된 인체에서 그

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의복을 통해서든 신체 자체를 변형하거나 왜곡시키는 이러한 비정상적 표현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설음으로 인하여 시각적 충격을 전달³⁶⁾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나 의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동시에 의복과 신체의 일탈을 통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아이러니한 쾌감까지도 갖게 한다.

또한 가레스 퓨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부풀린 패션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신체 본연의 형태를 벗어나 풍선과 같이 부풀려진 형상을 통해 유희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는 <그림 8>과 같이 옵아트의 패턴으로 부풀려진 패딩의 효과를 통해 인체를 하나의 원과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얼굴 전면을 가린 라텍스 소재 가면으로 괴기스러운 이미지까지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를 가린 극단적인 은폐는 큐비즘적인 모티브를 3D로 재해석하여 인체와 입체도형의 결합물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한 의상과 함께 비정상적인 그로테스크의 감정을 극대화 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림 9>와 같이 창백한 메이크업으로 고스적인 이미지 연



<그림 8> 가레스 퓨
2007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9> 가레스 퓨
2008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0> 가레스 퓨
2009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1> 가레스 퓨
2010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2> 가레스 퓨
2008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출과 함께 왜곡된 어깨선의 케이프, <그림 10>과 같이 과장된 러프칼라의 형태는 기괴한 인체를 연출하고 과장된 비정상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나친 왜곡과 과장의 형태, 완벽하게 은폐된 신체들은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인간 내면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로테스크의 또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질적 부조화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끼리의 혼합을 통해 낯선 무언인가를 창조해 내는 부조화 속의 조화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패션 디자인에 있어 이질적 디자인 요소의 결합이나 비일상적인 소재의 사용, 노출과 은폐의 상반된 표현의 공존, 동물, 식물, 기계와 인간 신체의 결합을 통한 기이한 형상 등은 그로테스크의 일면을 표현하게 된다. 일찍이 카이저가 그로테스크를 나타내는 예로 인형, 기계적인 인간, 꼭두각시로 경직된 신체, 무표정한 얼굴과 가면으로 경직된 얼굴 등을 언급한바 있듯이³⁷⁾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이질적 부조화는 하이테크 기계의 이미지를 도입시킨 사이보그의 형태나 동물적 이미지와 결합된 반인반수의 형상, 이질적인 소재를 통해 나타난다.

2010 S/S 컬렉션에 가레스 퓨는 그레이와 실버,

블랙을 중심으로 중세의 암울하고 어두운 일면을 표현하였고 <그림 11>과 같이 조류의 이미지를 이용해 이질적인 그로테스크를 선보였고, 2008 F/W 컬렉션에는 <그림 12>와 같이 동물의 털로 뒤덮인 것 같은 원피스와 중세시대 투구의 이미지, 창백한 고스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고스와 그로테스크의 이미지가 복합된 것 같은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과 동물이 혼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은 현대사회 전반에 만연된 인간 존재 가치의 상실과 동물의 인격화라는 상반된 아이러니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라는 그로테스크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림 13>과 같이 기존 의복 소재가 아닌 가죽과 같은 레커(lacquer)와 고무, 비닐, 펠름 등에 인공적인 광택을 입히는 등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해 사이보그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을 기계적 인공물과 같은 형상과 동일시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이보그의 공포와 극단적 이미지 표현뿐만 아니라 <그림 14>와 같이 화이트 컬러와 모듈형식의 조립에 의한 것과 같은 의복형태, 과장된 어깨와 각진 팔, 다리 등 중세 기사와 미래의 사이보그를 혼합한 것과 같은 이미지, 또 <그림 15>와 같이 이질적인 소재로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강인한 여전사와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체의 간접적인 노출로 관능적



<그림 13> 가레스 퓨
2007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4> 가레스 퓨
2009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5> 가레스 퓨
2010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6> 가레스 퓨
2007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7> 가레스 퓨
2008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인 이미지의 사이파이적인 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블랙의 컬러가 주는 공포와 혐오스럽고 극단적인 기계이미지의 그로테스크를 벗어나 화이트 컬러와 가레스 퓨 특유의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미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표현되는 사이파이적인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가레스 퓨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강인한 여성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첨단 기계문명 속에 점점 나약해져가는 인간 존재 하락에 대응하는 인간의 초인적인 힘과 강인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현대패션에 있어 소재는 외형을 변화시키는 감각적인 스타일링의 한 방법임과 동시에 미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³⁸⁾하기도 하는데, 그의 작품 소재로 자주 이용되는 라텍스, PVC, 비닐, 포일(foil), 고무, 에나멜 소재 등 일상적인 의복 소재에서 벗어난 비일상적 소재 역시 그로테스크의 이질성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16>과 같이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해 사각형의 틀 안에 인체를 구속하는 것과 같은 의복 형태는 인간의 몸을 인간, 동물, 기계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하여 이질적인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이너 특유의 실험정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

일반적인 미의 질서와 상반되는 혐오스럽고 불쾌함, 공포적인 요소는 그로테스크의 표현 방식에 있어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패션디자인에 충격적인 일탈의 미를 제시하게 된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이러한 언 캐니적인 표현은 실재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초자연적이고 악마적인 요소, 부자연스럽고 기이한 비인간의 형태로 그로테스크나 고스, 또는 키치적인 형태로 어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반한다. 이러한 공포와 혐오의 방식은 가레스 퓨 작품 전반에 표현되어 고스와 혼합된 그로테스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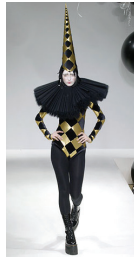
<그림 12>, <그림 13>, <그림 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블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어두움과 얼굴 전면을 은폐시킨 가면, 그리고 <그림 17>과 같이 창백한 메이크업 등은 죽음과 공포를 연상시키며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또 <그림 18>과 같이 타오르는 불꽃 영상을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 모델의 블랙 의상과 기이한 형상의 복면은 악마적 이미지로 공포와 충격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19>와 같이 살아있는 생쥐가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혐오스러운 이미지 연출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공포와 혐오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변형이나 가학



<그림 18>
가레스 퓨
2012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9>
가레스 퓨
2008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20>
가레스 퓨
2006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21>
가레스 퓨
2010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22>
가레스 퓨
2006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23>
가레스 퓨
2008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적 훼손이 아닌 블랙으로 전개되는 색채감과 창백한 메이크업,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일그러진 얼굴 형상, 그리고 의상에 표현되는 부가적인 혐오스러운 요소에 의해 악마와 공포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타낸다.

볼프강 카이저가 세상의 악마적 요소를 통제하여 쫓아내려는 시도로서 그로테스크의 측면 중 악마적이고 무서운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예술의 불합리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묘사한다고 하였듯이,³⁹⁾ 이러한 언캐니적인 공포의 표현은 악마를 통해 현 시대의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부각시키고 인간 내면에 대한 각성 및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무섭고 혐오스러운 공포의 표현은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현대인이 받은 두려움을 치유하고자 하는 내재된 욕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이 당면한 각박한 현실세계와 미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부정적 유희

그로테스크가 수반하는 유희의 본질은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이며 상호모순에 의한 이질적 결합에 의한 결과물로 부정적인 유희의 감정을 나타낸

다.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조화로운 비율이나 리듬의 경계를 벗어난 형상은 관찰자에게 기이함과 공포의 전율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억지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으로 충격적 결과를 양산한다. 패션에서 이러한 그로테스크의 유희성은 상식적인 질서를 벗어나 의도적으로 의복을 왜곡하고 과장하거나, 의복의 구성을 무시한 해체적 표현, 추한 신체, 무경계적 성의 모호함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유희 역시 즐거움 본연의 웃음도 아니고 어둡고 부정적인 공포의 부산물로 유희 그 자체도 아닌 과장된 비정상적 이미지, 이질적인 부조화, 혐오스러움 등 다양한 표현 특성들 속에서 동시에 느끼게 된다.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왜곡된 의복의 형태, <그림 13>, <그림 16>과 같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블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질적 소재의 사이보그 형상을 통해 왜곡된 신체의 형상 등은 비정상적이고 이질성과 같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과 의복 사이에 소외된 결과물로써의 부정적 유희의 감정 또한 동반하고 있다.

반면 <그림 20>과 같이 중세의 암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피에로의 희극적 형상을 통해 전환시킴으로써 카니발적인 그로테스크의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 얼굴 전면을 가린 라텍스 마

<표 2> 가레스 퓨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

표현특성	외적표현	내적의미
과장된 비정상성	- 라텍스, 고무 등 이질적 소재 - 기존 의복구성 원리의 왜곡 및 극단적 과장과 은폐 - 블랙, 화이트, 실버, 그레이 위주의 컬러	- 기존 의복과 신체의 미의식에 대한 해체와 확장된 의미 부여 - 신체 확장 표현에 의한 우월한 신체에의 갈망 및 강인한 여성상 표현 - 불균형과 과장에 의한 꿈과 환상성 부여
이질적 부조화	- 하이테크적인 비닐, 은박, 고무, 펠름, 에나멜 등 이질적 소재 - 반 인간, 반 기계의 사이퍼이적인 감성 표현, 동물적 모티브에 의한 반인반수 이미지 - 시대와 근원이 혼성된 브리콜라주 - 미래를 상징하는 화이트, 실버, 블랙 컬러	- 초월적 인간 존재에 대한 욕망과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갈망 - 인간 존재의 가치상실과 존엄성에 대한 재고 및 새로운 인간 주체의 회복 - 이질적 소재 결합에 의한 소외된 불가해한 세계 표현 - 사이보그 이미지를 통한 우월성 부여
인캐니적인 공포와 혐오	- 혐오스러운 오브제와 이질적 소재 - 인체의 왜곡과 과장 및 창백한 메이크업으로 어두움과 죽음, 악마적 이미지의 의도적 피기미 표현 - 부정적인 블랙, 무채색 위주의 컬러	- 변화된 신체 개념과 미의식의 표현 - 승고함의 위장 -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 현실에 대한 강박관념의 표출 - 인간 내면에 대한 각성 및 삶의 본질에 대한 의미부여
부정적 유희	- 이질적 소재 - 성 정체성의 모호함, 희화화된 광대의 메이크업 및 인체 왜곡과 과장으로 냉소적 희극성 표현 - 블랙, 화이트 위주의 컬러	- 웃음과 충격으로 현대사회의 고발 및 불합리한 현실 풍자 - 불안과 분노의 투사를 통한 무의식적인 해방감의 표출

스크와 같이 얼굴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리는 형상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 요소로 시각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나 인체를 왜곡시킨 과장된 의복의 형태를 동시에 연출하여 성적 모호함의 경계를 극도로 부각시켜 부정적인 유희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림 21>과 같이 여성과 같이 마른 남성의 몸을 통해 공포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창백한 메이크업과 노출된 복식을 통해 성적 경계의 모호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22>와 같이 온 몸을 블랙 바디슈트와 함께 부풀린 풍선의 형상은 인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확장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카니발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아이러니한 웃음과 공포를 유발하며, <그림 23>과 같이 정육면체 박스로 얼굴을 가린 모델의 모습은 무의식적이며 비의미적인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연출로 기괴한 그로테스크의 유희의 감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정적 유희는 웃음 뒤에 존재하는 현대인의 슬픔과 고독, 그리고 사회적 괴리감 등을 풍자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인간 내면에 억압된

본성과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카타르시스적인 표현이고, 또 디자이너 특유의 위트와 감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결론

고대장식의 기이한 형상에서 시작된 그로테스크는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만연된 소외현상과 문체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심리적 부조화와 맞물려 다양한 담론을 양산하며 새로운 표현양식을 유도하고 있다. 현대패션 역시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적이며 공포와 아이러니한 유희의 감정을 동반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전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실험정신과 충격적인 이미지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가레스 퓨는 제 2의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으로 일컬어지는 런던의 신진디자이너로 세기와 출처를 종잡을 수 없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과장된 어깨와

구조적인 실루엣, 건축적인 조형미를 나타내는 그의 작품은 그의 상징 컬러인 블랙과 이질적인 소재, 풍선과 같이 부풀린 기이한 형상 등을 통한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고스와 사이파이적인 감성과의 조화로 음산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옷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패션 영상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서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그로테스크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고,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통해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표현방식을 통해 현대패션이 나타내는 미적가치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결과 가레스 퓨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은 과장된 비정상성, 이질적 부조화,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 부정적 유희로 나타났다. 첫째, 과장된 비정상성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부풀린 패션, 과장된 어깨의 강조, 과거 복식 형태의 역설적 과장 등 지나친 왜곡과 과장을 통해 나타났다. 둘째, 이질적 부조화는 하이테크 기계의 이미지를 도입시킨 사이보그의 형태나 동물적 이미지와 결합된 반인반수의 형상, 라텍스, PVC, 비닐, 포일, 고무, 에나멜 소재 등 일상적인 의복 소재에서 벗어난 비일상적 소재를 통해 나타났다. 셋째, 언 캐니적인 공포와 혐오는 신체의 가학적 훼손이나 파괴가 아닌 블랙으로 전개되는 색채감과 창백한 메이크업,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일그러진 얼굴 형상, 그리고 의상에 표현되는 부가적인 혐오스러운 요소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유희는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이나 인체의 왜곡, 무경계적인 성의 모호함, 비의미적인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연출 등을 통해 나타냈으며, 기타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적

이고 이질적인 부조화, 공포의 표현을 나타낸 작품들 역시 공포에 수반되는 부정적 유희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실험적인 창조정신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전개하고 있는 가레스 퓨의 작품에 있어 그로테스크의 다양한 특성들은 독창적인 영감의 근원이며 독특한 디자이너의 감성을 각인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그로테스크의 표현들은 현대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과 불안을 반영하며 인간 본질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과 소외된 인간 내면의 회복을 유도하게 하는 미적표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그로테스크는 충격적인 자극효과와 경계초월의 의지는 앞으로의 패션에 있어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혁신적인 창조성을 추구하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일탈된 미의 가치는 미래사회에서도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리라 생각되며, 향후 패션디자인의 독창적인 전개에 있어서도 미의 가치기준과 발상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선호 (1983). *Der Bescuh der alten Dame*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기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2) New kids on the runway (2010. 9. 1). W Korea, retrieve d 2012. 1. 18. http://style.co.kr/style/search/search_view.asp?c_idx=010105030001915
- 3) 남미현, 박명희 (2004). 현대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4(8), pp.147-162.
- 4) 박은경 (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0), pp.85-100.
- 5) 서승미 (2003).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이미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2), pp.137-144.
- 6) 이선화 (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 61(5), pp.34-47.

- 7) 장미숙, 양숙희 (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pp.436-449.
- 8) 최정화, 유영선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 pp.151-170.
- 9) 다음사전(검색어: 그로테스크), 자료검색일 2012. 1. 18.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_w000032429&q=%EA%B7%B8%EB%A1%9C%ED%85%8C%EC%8A%A4%ED%81%AC
- 10) 전영운, 류신 (2001). 그로테스크의 형식·내용·수용, 인문학연구, 31(-), p.150.
- 11) 박은경. 앞의 책, p.87.
- 12) 장미숙, 양숙희. 앞의 책, p.437.
- 13) Kasyer, W. (1960). *Das groteske in malerei und dichtung*, Hamburg: Oldenburg, p.122.
- 14) 김홍희 (1997). 미국페미니즘 비디오 미술연구-나르시즘과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4.
- 15) 전영운, 류신. 앞의 책, p.152.
- 16) 장미숙, 양숙희. 앞의 책, p.100.
- 17) Thomson, P. (1972). *The Grotesque*, 김영무 옮김 (1986).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27.
- 18) 위의 책, pp.27-30.
- 19) 위의 책, p.31.
- 20) 위의 책, p.36.
- 21) 김선호. 앞의 책, p.7.
- 22) 유수미, 이재정 (2001). 디자인 매너리즘 극복으로서 그로테스크 과잉의 열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 p.180.
- 23) 최정화, 유영선. 앞의 책, p.168.
- 24) 남미현, 박명희. 앞의 책, p.160.
- 25) 박은경. 앞의 책, p.99.
- 26) 이선화. 앞의 책, p.46.
- 27) 차은정 (2007. 11. 20). Fashion design story, Moazine, 자료검색일 2012. 1. 18.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
- 28) 가레스 퓨 (2012. 1. 18). Daum, retrieved 2012. 1. 18. http://en.wikipedia.org/wiki/Gareth_Pugh
- 29) New kids on the runway (2010. 9. 1). W Korea Online, retrieved 2012. 1. 18. http://style.co.kr/style/search/search_view.asp?c_idx=010105030001915
- 30) 가레스 퓨 (2012. 1. 18). Daum, retrieved 2012. 1. 18. http://en.wikipedia.org/wiki/Gareth_Pugh
- 31) 채지훈 (2008. 11. 14). 깡통로봇 비운세 드레스, ukopia, 자료검색일 2012. 1. 18. http://www.ukopia.com/ukofLife/?page_code=read&sid=43&sub=62&review=&uid=119871
- 32) 런던 to 이비자 (2011. 12. 1). ikissyou.com. retrieved 2012. 1. 18. http://ikissyou.com/IKY_InMagazine/PopMoaMagazineArticleView2010.asp?Dir=148&catimage=60&IDN=148
- 33) 이지현, 노윤선 (2011). 빅터 &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4), p.67.
- 34) Suzy, M. (2010. 9. 29). Is a runway show necessary?,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2012. 1. 18. http://www.nytimes.com/2010/09/30/fashion/30iht-rshow.html?_r=1&pagewanted=all
- 35) 남미현 (2002).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3), pp.43-54.
- 36) 김은정, 박옥련 (2012). 2000년 이후 예술의상 작품에 나타난 테포르마시용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2), p.85.
- 37) 남미현, 박명희. 앞의 책, p.152.
- 38) 박은경, 이재정 (2004). 현대패션에서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4(2), p.2.
- 39) Thomson, P. 앞의 책, pp.24-25.

Grotesque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Gareth Pugh Collections

Kim,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rotesque features expressed in Gareth Pugh's works. His pieces have the experimental and creative grotesque dynamics. This research intends to reestablish the value of grotesque features that can be found in modern fashion and provide a basis for application to creative design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the future. The concept and features of grotesque works and Gareth Pugh's world were examined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his collections from 2006 F/W to 2012 S/S were analyzed. His grotesque expression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irst, his trademarks, such as inflated fashion, exaggerated shoulder points, and paradoxes of previous costume styles, showed an unusual grotesqueness through distortion and exaggeration. Second, his art world expressed an inhomogeneous disharmony via cyborg shape applied with a high tech machinery image, therianthropic form integrated with animal image, and application of unordinary material. Third, uncanny horror and disgust were revealed with such elements as the black toned process in color and pale makeup instead of sadistic damage or destruction to the body, the use of inhomogeneous material, a distorted face, and disgusting items attached to clothing. Fourth, negatively entertaining emotions were expressed through various elements such as comical makeup, a distorted body shape, trans-boundary ambiguity in sex, or a nonsense performance.

Key words: Gareth Pugh, grotesque, abnormality, disharmony, uncanny, negative playfulness